“한국, 미래세대 부담 크지않게 재정운용 해야”

KDI·국민경제자문회의 ‘재정 역할’ 국제콘퍼런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시하면 재정 급속 악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재정 여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재정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토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호텔에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특별 세션을 맡은 로런스 코틀리코프 보스턴대 교수는 “재정 정책 수립 시 단기적 총량 재정 지표보다는 중장기적인 세대 부담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며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대 간 회계 등 중장기 부담 요인을 감안한 재정 운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션 1에서는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이 고물가 대응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비토르 재정국장은 “고물가에 따른 생계 유지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해 재정지원이 요구되지만 물가 상승과 국가 채무 확대 속도, 경제기반 약화에 대한 시장 우려를 고려하면 긴축적인 재정 운용 유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욘 블론달 OECD 공공 관리·예산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여력 축소와 인구 고령화,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해 종합적인 예산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션2 에서는 ‘우리나라의 장단기 재정 위험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장기재정전망과 재정혁신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도 현행 제도·규정·관행이 지속될 경우 재정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할 것이다”며 “합리적 재방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재량 지출 추가 통제, 세입 기반 확충, 제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재정 여력이축소되는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내 · 외 전문가들이 모여 재정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토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KDI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안종석 대표는 “조세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단순·투명·공평한 세제 마련과 보편적 과세 체계의 확립을 통한 세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소득 재분배 효과는 보편적 과세 체계를 통한 소득세와 재정 지출 제도를 결합해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 거버넌스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우철 교수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경직적인 재정구조 개편을 통한 재정 운용 효율화, 체계적인 재정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요 변화에 맞게 지방이전재원 규모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재정 구조의 개방화 및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jgyang@skyedaily.com

3초컷 키워드

☞ 삼성전자, 30대 상무·40대 부사장 대거 발탁… 삼성전자가 임원 187명을 승진 발령하는 정기 임원 인사 단행. 직급별로 부사장 59명·상무 107명·펠로우 2명·마스터 19명 승진. 이번 인사에서 30대 상무는 3명, 40대 부장은 17명.

☞ 中쇼 과반 “내년 최대 수출 리스크는 원자재 가격 상승”… 가장 큰 수출 리스크로 원자재 가격 상승(54.9%) 꼽아. 뒤이어 환율변동(44.4%)·물류애로(37.5%)·부품 수급 차질(11.9%)·보호 무역주의 추세(8.8%) 순. 과반(52.9%) 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평균 13.9% 감소.

☞ 채솟값 눌렀더니 수산물이 ‘쑥’… 수산물 가격 상승률 6.3% 기록. 조사 대상 15개 품목 중 게(-3.2%)를 제외한 14개 품목이 상승. 오징어(15.2%)·명태(11.4%)·미역(11.6%)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

“규제보다 창조”… 신산업 규제혁신 기업 한자리에

산업부, 협의회 개최… 혁신제품 전시, ‘정책·투자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3차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승인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6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샌드박스 승인기업 85개사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상공회의소·투자자(VC) 등 100여명이 참석해 오찬 간담회와 정책 좌담회·투자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정책 좌담회에서는 산업부와 기업인·규제행정 전문가 등이 모여 규제샌드박스 제도성과·애로사항·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투자설명회·상담회에서는 10개 승인기업과 벤처투자사 심사역 등 10명이 참여해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사업성을 검증하고 실제 투자 연계를 검토했다.

엠디스퀘어·인티그리트·바스맨테크놀러지·레메디 등 4개 기업은 첨단 보건·의료 분야와 자율주행로봇·에너지신산업 분야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설명(IR)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산업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이강철 마로로봇테크 수석·김용덕 무지개연구소 대표 등 6명의 기업인에게 산업부장관상이 수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인 로보티즈를 방문해 전시된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이날 행사장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제품 24종이 전시돼 이 자리에서 기업·투자자들이 사업 성과와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산업부는 연내 기업수요 분석·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최환금 기자 hgchoi@skyedaily.com

이재용 회장, UAE 건설 현장 방문

취임 후 첫 해외 출장… 중동사업 중장기전략 점검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이 회장 취임 이후 첫 해외 출장에 나서며 경영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6일(현지 시각)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알 다프라 주에 위치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 회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사업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오지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회장이 중동 지역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2019년 추석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지하철 공사 현장을 찾은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바라카 원전은 삼성물산이 포함된 ‘팀 코리아’ 컨소시엄이 진행하고 있는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건설 프로젝트다.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는 지난 2012년 건설을 시작해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초장기 프로젝트로 오랫동안 현지에 체류하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임직원이 특히 많은 사업장이다. 바라카 원전을 찾은 이 회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원전 3·4호기 건설 현장을 돌아본 후 현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이재용 회장은 바라카 원전 방문에 앞서 삼성물산·삼성엔지니어링·삼성전자 중동 지역 법인장들을 만나 현지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

양준규 기자jgyang@skyedaily.com